

준엄하게 꾸짖었다 · 하긴 짚긴 짚었네

작성자 haesamLee (@haesamLee) 작성일 2012-07-10 21:07:46 (KST)
글 ID 222663402957455362 유형 일반

X에 저장된 본문

Daum 공유 글 · X에 저장된 본문 61자 · 연결된 글의 전문은 아카이브에 없음

준엄하게 꾸짖었다. ㅎㅎㅎㅎ

하긴 짚긴 짚었네. <http://t.co/IBpMSW6r> #mediadaum

X 글 ID: 222663402957455362

X 아카이브 원문 보관 사본 · 33 / 593